

半語的體系

-韓語語言文化-

楊人從*

一、前言

非韓語母語者學習韓語時，通常會聽到強調韓語裡有待遇法，和韓國人談話時要看對方和自己的身分來選用適當的話階。並且和韓國人初次見面時總會有被問到年齡的經驗，有爭端的時候也會問你幾歲了，年齡好像在韓國人的對人關係意識裡扮演著一個重要的角色。

待遇法是韓語的特徵之一，談話者依據自己和對話對象之間的身分關係(相對尊待)、自己和談話中提到人物的關係(主客體尊待、壓尊)，即依相關人物之間的年紀、輩份、地位、職位而有不同的話階(speech level 或 level of speech)。待遇法又稱恭遜法、敬語法、尊卑法、높임법。

話階是語言裡的階級層位，和韓國人第一次見面的時候有不能使用的話階，甚至韓國人之間第一次見面時也有不能說，說了會帶給聽話對方人不悅的話階。

為了選用適當的話階，韓語母語者總要動員第六感去忖度對方的身分，非韓語母語者就要依據話階定義來小心選擇適當的話階。

韓語語法家對待遇法論述眾多，對半語的定義幾乎都是「不拘形式的、親密的」話階，使用時機是：當談話對象是無法確定身分時、輩份年齡不相稱時、無話不談沒有隔閡的對象時。定義雖是如此，韓語母語者能接受半語的態度卻不是如此簡單。為瞭解其緣由，本文試由歷史文化探討待遇法的根源，對韓語學習者提供韓語母語者對半語的心理態度。

二、待遇法分類與定義

一般韓語語法學者將待遇法分為格式體與非格式體。

2.1. 格式體

格式體是制式化的話階，以終結語尾來表現，分極下待法(아주 낮춤)、普通下待法(예사 낮춤)、普通尊待法(예사 높임)、極尊待法(아주 높임)，也有依據하다動詞的命令形態分別稱之為하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再依敘法有陳述、疑問、命令、建議、感嘆的形態。

對象為韓語母語學生的高等學校語法《고교문법》對待遇法的定義如下：

(1)

격식체(格式體) : 말하는 이와 말 듣는 이 사이의 거리가 멀 때.

공식적, 의례적,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

- i) 해라체 (아주 낮춤) → -다, -냐, -자, -어라, -거라, -라
- ii) 하게체 (보통 낮춤) → -게, -이, -나
- iii) 하오체 (보통 높임) → -오, -(으)버시다
- iv) 합쇼체 (아주 높임) → -습니다/-버니다, -습니까/-버니까, -(으)시오

* 中國文化大學

**본 논문은2010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중핵대학 육성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음.

格式體是談話人與聽話人之間不熟悉、雖熟悉但囿於職位體制必須以制式話階談話時的待遇法，語言感覺(語感)上是制式的、禮貌性的、客觀性的、非親近的。

李翊燮·李相億·蔡琬(1997:249-283)表示現代主要以年齡與地位來選用話階。當對方比自己年齡、輩份、地位都小，但年紀逐漸長大時則給予逐級提升的待遇。

2.2. 非格式體

非格式體為不拘格式的話階，之所以名為반말乃是和온말相對的不完整的、半格式的「半片語」，半語又依하다動詞的命令形態稱之為해체。半語的陳述、疑問、命令、建議、感嘆等敘法都以-아/-어/-여/-야,-지等形態表示。《고고문법》對半語的定義是：

(2)

비격식체(非格式體): 말하는 이와 말 듣는 이가 가까울 때.

비공식적, 부드럽고, 비의례적, 비단정적, 주관적.

i) 해 체 (두루 낮춤) → -아/-어, -지, -을까 (해라체+하게체)

ii) 해요체 (두루 높임) → -아/어요, -지요, -을까요 (하오체+합쇼체)

非格式體的語感上是親近的、婉轉非武斷主觀的、不拘泥於格式框架形式的。一般將해체與해라체混合使用。

崔鉉培(1983:264)將半語視為等外(등외)的話階，歸之於해라與하게,하게與하오之間，又提到動詞的終止法敬語是韓語特有的現象，不當使用將會重大失誤，於是特意使用半語使談話等分模糊。相對於崔鉉培(1983)的定義，大部分學者不認同半語是介於하게與하오之間，但多數認為是介於해라與하게之間。

李翊燮·李相億·蔡琬(1997:264)則將해체(半語)納入格式體的해라체(極下待)與하게체(普通下待)之間，並且表示半語幾乎和해라체自由混合使用(雖有些例外)而不成問題，故認為將極下待與半語視為同一等級也無妨。

《延世韓國語辭典》對半語的定義為：

(3)

(서로 매우 친하거나 존대 관계가 분명치 않을 때)격식을 차리지 않고 가볍게 쓰는 말투.

談話雙方非常親近或尊待關係不明確時，不拘泥格式的話階。國立國語院《標準國語大辭典》的定義則是：

(4)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매우 친밀할 때 쓰는, 높이지도 낮추지도 아니하는 말.

對話人的關係不清楚時，或非常親密時使用的不尊待也不下待的話階。

李翊燮·李相億·蔡琬(1997:261)表示，半語的原始使用場合は「對於社會階級較低的人們無法設定明確等級時，以模糊的態度所使用的話階」，並表示「現代人將半語和해라체混合使用，已經沒有半語是下階層專用的話階的概念」。

一個家族裡，當談話人的年紀大輩份低，對輩份高而年紀卻小的對象，即處於尷尬身分時使用半語。父母養育孩子的過程使用半語，一方面是晚輩，一

方面表示親近，孩子成長過程必須教導使用適當的尊待法，是故孩子能否使用合宜待遇法和家庭教育有關。一般孩子對母親、祖母使用半語，對父親、祖父則使用格式體敬語，是據於慈母與嚴父之倫理。

由早期對半語的定義可以知道，半語原先是用於無法清楚判定對方身分時或輩分與年紀不相稱時所使用的模糊話階。階級制度廢除後眾人生而平等，半語不拘泥階級等分的特性似乎將成為平等社會的共用話階。

2.3. 格的意義

韓語待遇法分「格式體」與「非格式體」，此所稱「格」據李圭泰(朝鮮日報 李圭泰코너 1988.5.24)解釋其為一個人的社會、身分、階級上的位階。

(5)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렇게 동질성을 확인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사이가 안정이 된다. 한테 우리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지닌 사회적, 신분적, 계급적 격(格)이 맞아야 안정이 된다.

(馬來人藉著確認與他人之間的同質性，取得人際的安定。可是我們韓國人要在和他人的社會、身分、階級上的格一致才取得安定。)

馬來西亞鄉下如有陌生人來訪，首先問他的宗教，如果同樣是回教就先引導到大廳招待辣又辣的食物，然後安排到房裡隆盛的招待，以此取得人際的安定。韓國人則是依據對方的社會、身分、階級的位階取得格的安定。

雖然現代人人平等，但韓國人仍然活在根深蒂固的格(位階)框架之中，在第一次見面時，如果得知對方是同樣的宗姓，接下來則要瞭解輩份排行(항렬)，然後兩人之間的陌生關係就取得安定。知道是同一個學校畢業的校友，接下來想知道是哪一年入學的。親族、學校之外則按年齡與穿著忖度之。

三、半語的話階體系形態

韓語語法裡所界定的「반말」體系是在陳述、疑問、命令、建議、感嘆上都用-아/-어/-여/-야(依動詞、形容詞的語幹母音而分別選用-아/-어/-여/-야),-지的標誌，在此之後加-요則表尊待之意，形成非格式體的敬語。

3.1. 半語體系的傳統分類

崔鉉培(1983:266-279)指出半語所使用的終結語尾體系各種敘法皆使用 -아/-어/-여/-야,-지標誌。

[3-1]陳述話法：

動詞、形容詞語幹後接-아/-어/-여/-야，相當於極下待法的-니다/-는다/-다

(6)

a. 나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我也知道你是多麼的辛苦。)

[3-2]疑問話法：

動詞、形容詞語幹後接-아/-어/-여/-야，相當於極下待法的-느냐/-으냐

(7)

a. 은행에서 돈을 찾을 줄 알아?

(你知道從銀行提款的方法嗎?)

- b. 어디 갔다 지금 와?
(你去哪裡現在回來?)
- c. 하지만 나도 멍청히 있을 줄 알아?
(可是，你以為我也會傻傻楞楞的等著嗎?)
- d.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가진 어딜 가?
(我現在這個時間去，要去哪裡?)

(7)a.b.表示單純的詢問。(7)c.d.以反問表示強烈的否定。

[3-3]命令話法：

動詞語幹後接-아/-어/-여，相當於極下待法的-아라/-어라

(8)

- a. 너, 이리 따라와!
(你，跟我來這裡！)
- b. 그 여자 집에도 가 보고 그 여자가 평소 드나들었다는 집에도 가 봐.
(她的家也去看看，她說平常去的地方也去看看！)

[3-4]建議話法：

動詞語幹後接-아/-어/-여，相當於極下待法的-자

(9)

- a. 우리 모두 같이 가.
(我們一起都去吧！)
- b. 너도 같이 먹어.
(你也一起吃吧！)

[3-5]感嘆話法

動詞、形容詞語幹後接-아/-어/-여，相當於極下待法的-구나

(10)

- a. 어머니, 차들이 저렇게 많아!
(唉，車子怎麼那麼多！)
- b. 엄마랑 나물 뜯으니까 참 좋아!
(跟媽媽摘野菜，真好！)

半語的陳述、疑問、命令、建議、感嘆等敘法的形態都是-아/-어/-여/-야，但現代人一般將非格式體與格式體下待混用，若干辭典也將格式體下待標誌也歸入半語內。

3. 2. 半語與其他話階的混用

現代的半語如上各語法家的觀察，已經和格式體的極下待法(하라체)普通下待法(하게체)混用，並且半語之後加上-요助詞可以表示非格式體的尊待語，而與格式體的極尊待法(합쇼체)交替使用。一般認為談話全程使用합쇼체敬語則會讓聽話者覺得談話人與之有隔閡，如果偶爾插入해요체敬語則有親近之感，但如果全程使用해요체則聽話者會有不受尊重之感。

(11)

- a. 에끼, 무례하고 버릇없고 짐승만도 못한 놈같으니. 세상에 장인의 물건을 강탈해 가는 도둑놈 사위는 참 봤다! 참 봤어! 행! 네 이놈! 잘 살아 봐라! 잘 살아봐! 뭐! 뭐! 뭐!

(1970.3.27 한 집안에서 3년간 별거한 부부,MBC)

(幹, 這無禮沒教養禽獸, 這樣搶丈人東西的強盜女婿, 沒見過! 沒見過! 靠! 給我等著瞧吧, 等著瞧吧! 呸! 呸! 呸!)

b.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펍 모양을 잘 내는 임금님이 계셨어요. 이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 계시는 궁궐에 마음 나쁜 남자 두 사람이 찾아 왔어요. (별거뻐은 임금님)

(從前從前某個國家有一個非常愛漂亮的君王, 他每天要站在鏡子前面換好幾次的衣服, 有一天王宮裡來了兩個壞心的男人。)

(11)a.是下待法格式體與非格式體的混用, (11)b.是尊待法格式體與非格式體的混用。

3.3. 辭典的半語分類

現代韓語辭典對半語的分類有擴充的趨勢, 此現象可以視為傳統半語體系和格式體下待法體系的混合使用。國立國語院的《標準國語大辭典》和《延世韓國語辭典》分類雖有不同但皆有擴充半語標誌的現象。

3.3.1. 《標準國語大辭典》的半語條目

[3-6]陳述法語尾

- 네 敘述確認(하게 체+해 체)
- 디 回憶詢問(하라 체+해 체)
- 자면서 確認、揶揄
- 자니까 強調建議、厭煩確認
- ㄴ 걸/-은 걸/-는 걸,-던 걸,-르 걸/-을 걸 後悔、惋惜
- 어야지 強調條件、強調程度
- 르 지/-을 지 推測

[3-7]疑問法語尾

- ㄴ 가/-은 가/-는 가/-던 가 詢問(하게 체+해 체)
- 게 反駁疑問(하게 체+해 체)
- 르 지/-을 지 推測可能性詢問
- ㄴ 걸/-은 걸/-는 걸,-던 걸,-르 걸/-을 걸 推測詢問
- 어야지 強調條件詢問
- 고 抗議、揶揄、詢問

[3-8]命令法語尾

- 게 命令(하게 체+해 체)

[3-9]感嘆法語尾

- 구먼/-로구먼 嶄新感嘆
- 더구먼 回憶感嘆

3.3.2. 《延世韓國語大辭典》的半語條目

[3-10]陳述法語尾

- ㄴ 걸/-는 걸 自己意見感覺

- 르걸 推測
 - 던걸 對過去經歷事項,有嶄新感覺,對對方意見表輕微詢問,表惋惜
 - 느냐니까 重申詢問事項
 - 르게 約定,告知己意
 - 라니까 重申,重申命令
 - 야 斷定陳述
 - 지 已知事項確認,想像事項確認,同意,猜測推測
 - 네 確認想法與感覺
 - 는대 聽聞事項
 - 라남 輕微反駁
 - 라는감 反駁
- [3-11]疑問法語尾
- 아 詢問
 - 니 疑問極下待法+半語
 - 는대 詢問聽聞事項
 - 네 徵詢同意
 - 지 親切詢問,徵求同意
 - 야 強烈否認
 - 라면서 確認聽聞事項
 - 라며 確認命令,確認聽聞事項
 - 라나 不滿
 - 르까 自問,推測,徵詢意見
 - 는다면서 聽聞事項的確認
 - 는다며 聽聞事項的反問
 - 는다던 強烈主張
 - 노 疑問
 - 냐니까 重申確認
 - 니다지 疑問
 - 니다면서 疑問
 - 니다며 疑問
 - 니다디 疑問
 - 니다던가 疑問
 - 니다던 疑問
 - 르고 鄭重詢問責備

- 고 疑問對有某事存在
- 고 疑問抗辯
- 고 疑問訝異感嘆
- 게 詢問意圖,猜測,確認

[3-12]命令法語尾

- 아 命令
- 지 命令
- 라면서 確認命令
- 라며 確認命令
- 라니까 重申命令

[3-13]建議法語尾

- 아 建議
- 지 提議建議自己意見

[3-14]感嘆法語尾

- 아/-야 感嘆
- 는군 嶄新感
- 로군 感嘆
- 고 訝異

四、半語的意涵

由韓語語法家對半語的定義得知，「半語是不拘傳統制式待遇等級的談話話階，原來是對下階層無法確定待遇等級時使用的話階，現代則是對互相親近的人所使用的話階」。定義雖是如此但實際上由使用實例看，此中確有若干的無法反映半語定義的對立現象存在。

韓國小說、劇本等文學作品裡有關半語的描述，似乎不侷限於半語標誌，人物之間的對話即使使用格式體話階但內容不恭不遜和尖酸刻薄的話也是半語。小說劇本裡所呈現的對話，應是作家親身生活體驗和社會現象的反映。

另外由網路虛擬世界的留言與埋怨投書檢視，可以得知現代韓語母語者對半語的使用對象、時機的認知仍未一致，而導致談話對象有受辱的感覺。

上述語料顯示的半語

[4-1]半語表示權威

(12)

a. 김 주사는 칠성이가 쭈그리고 겁먹는 듯이 앉아 있는 것을 보자 한층 깔보았는지, 무슨 일이 있어 왔나? 이 밤중에.....?" 하고 제법 **위엄있게 반말로 대들었다.**(정비석 성황당)

(大概金主事看見七星有點害怕蹲坐著的表情，於是更加輕視他而威嚴地用半語對他說：「為何而來？這麼晚了...？」)

b.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첩보는 사람에게 **반말하고 군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2010.10.08 Daum)

(不能因為年紀稍大就無條件對第一次見面的人說半語，想以君臨的態度對人是不對的。)

(12)a.金主事為了顯示身為長輩的威權而使用半語。作家用위엄있게威嚴地來修飾반말半語，表示半語使用者的身分是長輩，說半語有其社會地位與權威。(12)b.受到半語待遇的人認為對方是以「君臨」的態度對人，即使是年紀大也不應在第一次見面，也就是對陌生人以半語相待。作者是某業種的職員。

[4-2] 半語表示傲慢侮辱

(13)

a.이런 가게도 장사가 잘 되나? 손님도 없을 것 같구만, 안 그래, 영?

나이도 어린 형사가 반말 비스름하게 하는 게 거슬렸지만 심씨는 이런 놈들에게 찍혀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김윤영,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這樣的舖子生意好吧?好像沒有半個客人呢,不是嗎?哼?年紀輕輕的刑警嘴裡掛著半語,聽起來雖然刺耳,沈老心想被這樣的人盯上準沒好事,所以還是儘量恭敬的回答。)

b.농촌에서는 들돌이라 하여 자신의 몸통만 한 바윗돌을 들어올려 일곱을 세 번 헤아릴 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나이 들어도 반말을 들어야 했고, 품을 팔아도 반품밖에 받지 못한다.

(2005.5.17.이규태코너)

(在我們農村有所謂的「들돌이」這檔子事,如果不能抬起和自己身體一樣大小的石頭,撐著數到七三遍的話,即使上了年紀仍要聽到半語,賣勞力時也只能賣得一半的價錢。)

c.나는 의사가 무심코 사용하는 반말에 나의 인격이 함께 모욕당하는 기분이었다.(연세한국어사전)

(我對醫師不經意下說的半語,有人格受到侮辱的感覺。)

(13)a.這是刑警對管轄區的人展示其職務上的權威,被管轄的人為求無事只得忍受擁權者的傲慢態度。(13)b.반말을 듣다(聽到半語)似乎是人生中一件奇恥大辱的事,由此推論반말在過去歷史階級時代似乎是不光彩的待遇。

[4-3] 半語是藐視

(14)

a.왜 반말을 하구 그러세요?(영화대본:키스할까요?)

(幹嘛說半語?)

b.삼순: 이 아저씨 정말 웃기네? 도마뱀이야? 왜 자꾸 말꼬릴 잘라 먹어? 왜 반말 해,왜!

(영화대본:김삼순)

(三順:你這人也真是的,我是蜥蜴喔?幹嘛一直含含糊糊不說清楚?為什麼說半語?為什麼?)

c.꼴불견 채용기업 유형으로는 △면접 시 반말 등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나잘난형'이 44.7%로 1위에 꼽혔다. (2010.5.6 OnTimes)

(最不喜歡的企業徵人口試類型,以半語等藐視的口氣問話的「唯我獨尊型」為44.7%占第一位。)

d.처음 만나서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반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연세한국어사전)

(對沒見過面還不很熟的人隨便說半語怎麼行?)

在身分年紀熟悉度都不相當的時候,聽到對方對自己說半語而以(14)的抗議,表示半語並非都是親近之語,反而有受到藐視的感覺,「왜 반말 해?」,「왜 자꾸 말꼬릴 잘라?」都是不同意對方以半語相待的回應。

[4-4] 半語是粗暴之言

(15)

a.일차선에서 비켜 주지 않는다고 내 앞에 차를 세우고 나에게 다가온 40대 기사는 반말

로 폭언을 퍼부었다.(연세한국어사전)

(因為說我在第一線道不讓路而在我前面停下車子，向著我走來的四十多歲男人對我粗暴的罵。)

(15)a.表示半語是用來罵人的，也就是半語對韓語母語者的意涵是謬言。

[4-5]半語表示熟稔

(16)

내가 고등학교를 마친 익산시에서 친구의 소개로 두어 번 만난 일밖에 없던 친구였다. 반말을 쓰는 것만도 어색할 정도로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마장동 귀퉁이까지 밤중에 찾아온 것도 신기했고, 들어오자마자 라면 없느냐, 먹을 것부터 찾는 것도 신기했다. <박범신-내 기타는 죄가 많아요, 어머니>

(他是在我高中畢業的益山市經朋友的介紹，只見過一兩次面的朋友，連使用半語交談也會覺得生疏的、沒有特別關係的人，在深夜跑到馬場洞小巷子裡來找我，這件事是很奇怪的，一進來就問有沒有拉麵，一見面就找吃的也是很奇怪。)

此段內容提到的使用「반말」的對象是「可以放心無話不談沒有芥蒂隔閡的關係」。

(17)

“한 선생님은 왜 말씀이 통 없으세요?”

잠시 김 계장이 조용하자, 그녀가 정수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 미안해요, 난 말재주가 별로 없어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는 정수의 미소가 소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도요. 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했죠!”

“아, 아니에요, 난 신경쓰지 말아요. 듣기만 해도 재미있네요!”

별다른 말은 아니었지만 소령은 모처럼의 따스함을 느꼈다. 앞쪽의 상대가 격의 없는 반말로 편한 사람이라면, 옆의 상대는 거북하지 않은 존대로 인간적인 위안을 주는 사람이었다.

<김정현-아버지>

「韓先生怎麼都不說話？」

金係長暫時停下了，她回頭問正洙。

「啊，不好意思，我不太會說話。」

好像害羞似地臉紅的正洙的微笑，給少校留下一個深的印象。

「即使那樣，您不喜歡我吧？」

「啊，不不，不要在意我，我光聽就覺得有趣了。」

雖然不是怎麼特別的話，少校感到難得的溫暖，如果對面的人是可以無隔閡的使用半語的人的話，那麼旁邊的人是可以不用不覺窒礙的尊待話而給予慰藉的人。

這是用語言話階來表示對人觀感的一段內容，這裡所說的「반말」是「無隔閡的半語격의 없는 반말」，這是半語的另一個定義，對人使用尊待的上待法話階表示彼此之間有著心理的距離。

半語用於熟悉親近之人際關係

(18)

현무: 현사장 온 거 알어?

이영: 좀 전에 왔다 갔어요.

현무: 그래? 짜식 빠르네.

이영: 근데 새삼 기분 나쁘네요? 아주 툭 까놓고 반말 하기에요?

현무: 억울하면 너도 반말 해.

이영: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반말하기 싫어요.

현무: 도대체 그 속엔 뭐가 들었을까? 구렁이가 들었나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들었나. 이만하면 친해지다 못해 굶아 터진 사이 아닌가?

이영: 자꾸 우리라고 갖다붙이지 말아요. 누가 보면 정말 데이트 한 줄 알겠네.

현무: 아 미치겠네 정말. 머리를 열어볼 수도 없구.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니?(영화대본:김삼순)

(玄：你知道玄社長來了嗎？
 李：剛剛來了又走了。
 玄：是嗎？小子跑得也真快。
 李：可是幹嘛那樣不好心情呢，怎麼說起半語？
 玄：悶的話那你也說半語好了。
 李：我不喜歡跟一點也不親近人說半語。
 玄：到底那裡面裝了什麼東西？裝了莽蛇還是九尾狐？這樣子都不能親近，不是傷心透了嗎？
 李：不要一直拿我們來說，別人會以為我們真的在約會呢。
 玄：我快瘋了，真的，腦袋瓜子也不能打開來看，你到底都在想些什麼？

對話顯示半語是用在親近的人之間的話階，不親的話說來半句不投機。

[4-6]半語是尖酸刻薄的話

(19)

"여보 노인,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소. 메밀을 갈았으면 메밀을 간 세만 내면 되지 않겠소?" 이시봉은 거만스런 반말로써 사정없이 쏘았다.(김정한,사하촌)

(「喂！老先生，沒必要那麼說話，磨了麥子，繳了磨麥的費用不就好了？」李始鵬用傲慢的半語毫不留情的說。)

儘管是하오체(普通上待 예사높임)的話階，作家的描述是거만스런 반말傲慢的半語。一般讀者投書也認為即使使用的是屬於尊待法，談話口氣充滿不屬不敬的也稱之為半語。

(20)

그런데 사과와 변명도 한마디 없이 반말로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라며 물건을 주고 가 버리는 것이었다.(차성태,중앙일보,[쓴소리] 서비스정신 부족한 택배직원 2000/08/25)

(可是他(送貨員)沒半句道歉和辯解，就用半語調調說「要？不要？」說完給了東西就走掉了。)

尖酸刻薄的話也稱為半語。半語+요雖然定位為親近的敬語，但說話態度不謙遜也不會有受到尊重的感覺。

(21)

브리핑을 마친 간부가 자리에 앉자 군인들의 정중함에 앉아 턱을 괴고 있던 소장 계급, 윤정섭을 바라본다.

소장:

쓸만한 놈인 것 같은데... 윤국장, 어떻게 생각하나?

윤정섭: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긴 하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정황들 때문에라도 기용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는 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령:

(대뜸) 안 좋은 정황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어르신께서 취임하실 때까지 반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선전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오.

반말을 하는 젊은 중령을 안경 너머로 힐끗 바라보는 윤정섭.(영화대본,이중간첩)

(完成簡報的幹部回到自己座位後，坐在眾軍人中間托著腮子的少將看著尹正燮。)

少將：他好像滿有可用的，尹局長，你認為如何？

尹正燮：調查的結果是肯定的，但是有一些不好的情況，還是要慎重考慮是否起用才好。

中校：(緊接著說)不好的情況？那是什麼話？老大還剩半年就要上任，有這樣一個好東西拿來宣傳好好運用不也是很好嗎？

(從眼鏡後瞧著說半語的年輕中校的尹正燮。)

少將使用格式體普通下待의-나，在階級分明的軍隊裡是得體的，而中校的

談話中是格式體極下待-라니、非格式體尊待-이요與格式體尊待-오混用，其內容則是有下犯上的感覺，所以劇本寫作人認為那是半語。

[4-7]半語是有口無心的話

(22)

뒤라 말할 사이도 없이 그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곳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살인미수용의자로 연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여자, 알아? 몰라요?"

반말도 아니고 경어체도 아닌 형사의 물음 앞에서 말보다 입이 먼저 막혀 뒤라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그의 앞에 사진이 한장 놓였는데,(김인숙,칼에 찢린 자국)

(沒有說什麼的餘地就被抓到警察局去了，到了才知道自己被當成殺人嫌疑犯，「這個女人你認得不認得？」刑警的既不是半語也不是敬語的問話，使自己訝然說不出話來，桌前有一張照片。)

알아? 몰라요?或許可說是半語與非格式體敬語的混用，可是作家將之定位為不是半語也不是敬語，聽者對之而氣憤說不出話來，顯然是不敬之語。而作家筆下可以說半語的資格是：

[4-8]年紀應相當

(23)

a. "이 새파란 새끼가 어따 대고 반말이야. 너 일루 와봐."(김영하, 비상구)

(「你這個白嫩小子，在跟誰講半語啊！你過來！」)

b.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내뱉었다. 나한테 반말하지 마. 다섯 살이나 어리면서! <은희경-내가 살았던 집>

(她眯著眼睛迸出這樣的話，不要跟我說半語，都小我五歲的人！)

c.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어이~~ 야~~ 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2010.10.08 댓글)

(看到一些自認年紀大就不分青紅皂白的說어이~~ 야~~ 이봐~~的人，我真的無言了。)

幼嫩的小伙子、年紀小了五六歲的人都沒有資格對年紀大的人說半語。年紀是決定話階的主要衡量要素，這是對說半語的對方表示不以為意，也就是跟你的關係還不到可以容納你說半語的程度。

[4-9]學長身分

(24)

술을 마시는 대신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김의 선배가 입을 뗐다. 초면인데도 그들은 모두 그에게 존댓말을 했고 그는 대충 반말로 말하고 있었다.(성석제-해방-술 마시는 인간)

(不喝酒而只摸著酒杯的金先生的學長開口了，即使是第一次見面，他們對他說敬語，他則說半語敷衍著。)

文段前點出他是金的前輩學長，所以身為學長即使是第一次見面也可以使用半語。

[4-10]第一次見面勿說半語

從事服務業的人經常會被受服務者使用半語詢問或命令，服務業者付出勞務換取報酬其身分並非因此低人一等。或者被服務者以說半語以表示和對方親切，前者的自尊和後者對半語定義的認知似乎互有出入，導致一方想親善一方

卻不領情。

(25)

a. 언제 보았다고 반말을 마구 하는 거요?

(我們什麼時候見過面，怎麼亂說半語?)

b.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서 반말을 들을 경우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예의와 배려 차원에서 높임말을 서야 한다.(이복남 ablenews)

(沒有一個人聽到陌生人以半語相待會高興的，所以對從沒見過的人應該從禮貌和善意的角度說敬語。)

c.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별루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봐~~ 야~~ 라고 말씀하시길래..

나: 저기요~~저 아세요?

상대방: 상대방 몰라. 내가 너 어찌 알아?

나: 근데 왜 반말하세요?

상대방:

(2010.10.08)

(我個人有不太好的事情心情不好，那天(客人)對我說「喂！呀！」...

我：先生！您認識我？

他：不認識，我怎會認識你？

我：可是怎麼對我說半語？

他：.....)

問「我們見過面嗎？我們相識嗎？」就是「我們沒見過面，就不是熟識的關係」，這意涵著不能對陌生人說半語。

人們容易以他人的外表、穿著等外觀來判定一個人的位階，而使用自己所判斷的待遇話階。

(26)

a. 우리 한국 사람은 의당 그래야 하고 또 당연하게 받을 사람으로 자신을 당연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반례를 하지 않는다. 반례는 커녕 오히려 처음 본 사람인데도 반말을 지껄인다. 이토록 서비스를 받을 줄도 모른다.

(李圭泰 2000 한국인 이래서 못 산다, 신원문화사)

(我們韓國人對別人的服務認為是應該的而不給予回禮，不給回禮也就算了，甚至對第一次見面的人說「반말」。)

(26)a. 表示在接受服務業者的服務時，至少給予相應的回禮，不應視為那是商業來往，也不應以半語相待。

[4-11] 由年紀決定話階

職場上職位高的年輕人對年紀大的下屬使用半語，似乎是宣告自己的權威，年紀大的屬下有被侮辱的感覺。或許年輕主管希望以半語表示親切，年長下屬希望獲得尊敬，兩人的認知有距離。

(27)

a. 막상 학생시절 후배에게 반말을 들으니깐, 은근히 맘이 상합니다.(2010.05.08)

(聽到學生時代的學妹跟我講半語，心裡面真不是滋味。)

b. 아들뻘되는 전화국 공무원에게 반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1212 사건 정승화는 말한다)(정승화는 말한다)

(他說他也聽過兒輩的電話局公務員對他說半語。)

(27)a. 作者談到對方是大學學妹，但自己因為服兵役而較晚畢業，學妹先進入職場而對他說起半語。(27)b. 一位將軍退休後遭受到孩子輩的電信職員不禮貌的待

遇。

(28)

물 줄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대로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 맞고 있는 민.

민 : 야!!

최 : 너 왜 반말이야? 보아하니 애 같은데, 너 몇살이니? 나 37살에 애가 둘이다.

(영화 대본:가을 연가)

(水柱衝下來，被蓮蓬水噴到的敏，

敏：喂！

崔：你幹嘛說半語(罵人)？看起來你是小孩子嘛，你幾歲？我三十七歲，有兩個孩子。)

這段電影對白裡的半語只是個「야」，聽者認為這是出言不遜，以自己年紀大不該受半語待遇。

[4-12] 互相允許下說半語

(29)

(슬며시 일어나 욕실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건우. 그때-)

그녀: (소리)야, 물 좀 줘!

건우: (물을 컵에 따라서 갖다 바치는 건우.)

그녀: 야!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나!

건우: 저... 미안하지만 어제 돈 내려구 지갑 열다가 보니까 78년 생인 거 같은데... 반말을 자주 하시면...

그녀: 반말 하면, 뭐! 어떻게 다구! 수건 좀 줘!

건우: (수건을 갖다 주며) 아니요... 그냥... 전 77년이거든요.

그녀: 그럼 너도 말 내려! 칫솔두!

(칫솔을 갖다주는 건우, 고분고분 말을 참 잘 듣는다.)

(영화대본:엽기적인 그녀)

(不動聲色起床，躡手躡腳小心翼翼的走向浴室的牽牛，就在這當兒-

女：喂！給我水。

男：(杯子裝了水端過去)

女：喂！我怎麼在這裡睡覺？

男：這這...不好意思，昨天要交(旅館)費用，打開你的錢包，你好像是78年出生的，你一直說半語恐怕...

女：說半語又怎樣？給我毛巾！

男：(遞上毛巾)不？只是..我是77年生的。

女：那麼你也說半語啊，給我牙刷！

(遞給她牙刷，滿聽話的。)

b. 춘희: 언제 나이 물어나 봤어? 반말도 자기가 먼저 썼으면서. (영화대본:미술관 옆 동물원)

春姬：你什麼時候問過年齡？半語也是你先用的。

c. 아직 반말해도 좋다고 허락한 적 없으니 제게 말을 높여 주세요. (연세한국어사전)

(我還沒允許你說半語，請你還是對我尊重一點。)

朋友之間應互得對方允許才說半語。(32)a. 兩個男女青年在不相識下的對話，男生年紀大女生一歲，對女生一直說半語表示不以為然，女生說那麼你也請「放下話階말을 놓다」。

[4-13] 上位者更須使用尊待語

「民為貴，君為輕」的觀念是今日平等自由世界的共同趨勢。上位者似乎欲以半語表示你我無隔閡且親切的關係，但聽者並非一定能領受言者的心意，因為會以君臨的方式解讀。

韓國現任李明博大統領在競選總統時，和記者的談話全程使用半語，甚至任現職和民眾談話時也使用半語，似乎是認為半語可以表示和民眾親近，如果

民眾輿論認同這種想法，新聞報導就不會有這一則消息，並而引起大眾評論。眾多輿論舉出前任諸總統對兒童談話仍使用敬語的例子與之形成對比，可見韓語母語者對半語的使用時機與意涵認知並不一致。

[4-14] 半語並非輕視語

或許一個人受家庭教育、現代平等思想的薰陶，對半語的認知與傳統意義不同，習慣以半語待人，似乎在忠實執行「半語是一種既不尊待也不下待的話階」的定義，持有這種理念的人沒有惡意的在和第一次見面或見面幾次仍不熟悉的人也使用半語。

(30)

안녕? 나는 올해 6기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의 한국팀에 속한 '디디' 라고 해!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가워~ 편의상 반말로 쓰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것 같아서 반말로 쓸게. 이해해 주길 바래~(에이블뉴스 ablenews 2010-08-19)

(大家好，我是參加今年第六回「障礙青年夢想隊向六大陸挑戰」的韓國隊的DD，很高興和大家見面，我認為和大家說半語比較能和各位親近，所以在這裡就說半語，希望大家能諒解。)

這是自認為半語可以表示親切接近對方而特意全部使用半語的例子。

[4-15] 使用半語應慎重

韓語母語者似乎並非都是如此想法，仍然是小心翼翼的隨著交往親份來慢慢調整話階，因此會在適當時機問對方的年紀，或者徵詢對方是否可以調整話階。

(31)

a.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사람 저런사람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저도 말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라 웬만하면 후배들에게도 높임말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몇번 술 같이 마시고 상대방이 '말 놓으세요.'하면 그제서야 반말을 하긴하죠.(2003.10.19 Daum forum)

(在世間活著活著，總會遇到各色各樣的人，我算是談話小心的人，對學弟也誘導以敬語對談，當然喝過酒對方請求「我們調整話階吧」時才說半語的。)

말 놓으세요算是韓語的語言文化，沒有話階的語言是不必有這樣的表達的。

(32)

나이와 상관없이 초면엔 저절로 존대말이 나오더군요.^^ 상대가 말을 놓으라고 하기 전까진... 아직까지도 말 놓으라고 하지 않은 여자후배들에게 존대말을 쓰고 있다는...^^; 그게 서로한테 좋은거 아닌가요?(2003.10.20 Daum)

(我是不管對方的年紀多大，第一次見面自然說敬語，直到對方說「請不要說敬語」為止，對還沒請求勿說敬語的女性後輩我還是說敬語，這樣是不是對雙方都好?)

慎重論者不希望大家彼此以半語交談後，輕率的一方會逐漸失去對別人的尊重。

(33)

a. “우리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치사하다면, 그런 짓 안해.” 세 사람은 나란히 눈 쌓인 길을 걸었다. 백화가 말했다.

“그럼 반말 놓지 말라구요.”

(황석영:삼포 가는 길)

(「我們都是有義理的人，不光明至大的事是不做的」，三個人並排走在雪地上，百華說了：「那麼我們就不要說半語吧。」)

五、半語話階影響下的韓國人思維

話階對韓語母語者來說，是和言談中相關人物的階級、輩份、年紀、身分、地位有關的倫理、心理距離。話階的存在影響到韓語母語者的思維，有若干社會現象也因此而產生。

[5-1] 爭端的起因

高麗、朝鮮朝歷經兩千年之久的科舉考試，其科試內容是代表中國儒家思想的四書五經，飽受儒家思想浸潤，再加上建國功臣享受國家優遇的貴族待遇，貴族是領地內的大地主，領地內的平民和源自戰爭俘虜及削官妻女子充當的奴婢，形成階級明顯的社會，倫理思想再加上階級制度使其語言也加入階級意識。

階級制度下的各階層是代代相傳的，一個人的階級是固定的，故而該使用的話階也是尚未出生就已經定好的，換句話說是「宿命的」。

語言反映制度文化，現代平等時代裡即使貴族奴婢制度崩潰，話階也逐漸減少，可是語言倫理仍舊存在於韓國人意識之中，離開家庭進入眾人平等的社會時，莫不希望眾人以平等待我，可是語言裡的待遇法機制使得人人必須小心自己的談話，一有失誤即容易造成爭端。

[5-2] 重視年輩

韓語待遇法的制式格式體主要以家族裡輩份年齡為主要選擇話階的判斷依據，到家族外面世界則以年紀大小為主，職場、軍隊、學校等群體社會則以年紀職位為主。韓國人和初次見面的人會問多大年紀，這無非是要確認對方是不是該用更高的話階，起衝突的兩造人馬會問「你幾歲了」，自認年紀大的人希望對方給予相應的待遇。政黨協商雙方要年輩相當才容易順利進行。

[5-3] 重視外表

人一旦離開家庭的框架進入不特定的茫茫人海時，就難以辨認身分訂定談話階層，為避免被以貌取人而招致半語的待遇，於是外出時一定要衣冠整齊、化妝得體。

[5-4] 重視學歷

進入社會找工作時，儘量迴避擔任要被半語待遇的職務，一般服務業通常是會聽到半語的工作。因此努力提升自己的學歷是改變自己的待遇的重要方法。

六、半語衍生出的韓語語言文化

韓語的語言文化中有反映韓語母語者思考邏輯的現象，尤其是因為韓語裡有著待遇法的關係而產生一些特殊的名詞稱謂或慣用語、慣用句。

6.1. 名詞

韓語裡有數個既是尊待也是下待的兩面詞。

(34)

a. 말씀

b. 당신

- c. 양반
- d. 반말
- e. 반말지거리=반말
- f. 반말투
- g. 싸라기 밥(《상말속담사전》)
- h. 너나들이(《우리말 풀이사전》)

(34)a. 말씀是和말在待遇法上相對稱的詞，可是말씀卻是敬稱對方的談話，也是謙稱自己的談話。(34)b. 당신(當身)原是第三人稱用詞，用於一般夫妻互相尊稱，對親近或不親近的人表示尊敬又藐視的稱呼，(34)c. 양반(兩班)原來指稱貴族，現代用於語言表面上的尊稱或卑稱。(34)d. 반말(半-)下待待遇的話階，又是親近朋友表親密無間的話階。(34)e. 반말지거리는 반말或胡亂說半語的人的意思。(34)f. 以半語的語氣說話。(34)g. 碎米飯代稱半語，這是韓國人類感意識的產物。(34)h. 是人稱稱呼詞너(你)나(我)的合成，這兩詞的使用資格是權威者對隸屬者，處於不對等地位，是有心理上的差距與距離的，但使用在互稱時，則是親密的關係。

6. 2. 慣用語

半語在韓語裡形成若干慣用表達，是韓語特有的語言現象。

- (35)
- a. 반말을 하다
(說半語。)
 - b. 다짜고짜 반말을 짝 짝 까다
(不管三七二十一就說半語。)
 - c. 막말하다 (상말속담사전)
(說話尖酸刻薄。)
 - d. 반말을 듣다
(聽半語)
 - e. 말을 놓다
(降低話階)
 - f. 말을 트고 지내다
(敞開心胸相處)
 - g. 말끝이 흐려지다
(話尾模糊)
 - h. 말꼬리를 자르다
(切斷話尾)

(35)a. 說半語意涵對聽話人的親切、藐視、威權。(35)b. 不管三七二十一不瞭解情況就說半語，這是指冒失不禮貌的人。(35)c. 即使使用較上階層的話階但是內容卻是尖酸刻薄的也是半語。(35)d. 受到半語的待遇，不被尊重。(35)e. 談話人自忖對方對自己太過尊敬或希望和對方更能親近。(35)f. 和別人無隔閡的相處。(35)g. 韓語藉稱呼詞和終結語尾來表示待遇法，在對方的態度曖昧無法選定適當待遇話階時，出現語尾模糊現象。(35)h. 與g. 同義，唯此句為主動表達。

6. 3. 俗諺

《俗談辭典》裡收錄數則半語關鍵詞的俗語。

- (36)
- a. 싸라기밥을 처먹었나?(상말속담사전)
(吃了碎米飯嗎?)

- b.좁쌀 싸레기만 먹었나?(속담사전)
(只吃小米飯嗎?)
c.반말 쌍말 하고 있다.(토속어사전)
(在說半語常民語。)

俗諺大部分是譬喻功能，(36)a.싸라기 밥指破碎的米做的飯，(36)b.좁쌀-좁쌀粟米(小米) 싸레기-싸라기小米碎米。吃了碎粒米做的飯說話也講得支離破碎，這是韓國人類推意識下的譬喻方式。(36)c.의쌍말是상말的強調。

6.4. 問候語

- (37)
a.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안녕하세요? 예.
(박구용 2007.08.28 hani)

全南大學校哲學系박구용教授表示，在打招呼時以(37)b.的方式回答時顯示出兩人之間是處於不對稱的狀態地位的。

七、結論

語言是內心思維的表露，韓國人的語言習慣就是反映了韓國人的思維方式與習慣，語言習慣來自生活環境，不同的生活環境孕育出不同的思考方式與表達方式，是故語言與文化有密切的關係。

生活環境與政治制度造就特殊的生活方式、語言群體的思維模型、思考方式。學習一種語言就是要學習以該語言的習慣用法、意涵來思考、對話與表達意念。

語言裡人稱有位階，依該語言的文化而有多寡，韓語的人稱代名詞、一般名詞都有尊卑之分，待遇法以依附於句尾的方式表達，在過去階級分明的時代裡，各個人該使用哪種待遇法是固定的、宿命的，在民主自由平等的社會裡，待遇法是個隨個人判斷的選項，或稱為社會規範，依輩份、年紀、地位、職位使用社會已設定好的話階，演講、開會、授課等都使用上待法，報紙書籍等以大眾為對象的媒介使用中極下待法。不合時宜的話階正逐漸無人使用而消失。

依談話人意志自由選用的반말(半語)，照字面意義是「話講了一半」。家庭裡輩份低卻年紀大的人對年紀小卻輩份高的人，用上待下待話階都覺得不自然，這種場合使用半語。延伸到社會人際關係上，在不知道對方年紀身分時也使用半語。

格式化待遇法表示的是客觀的、嚴肅的、有距離感的情態，非格式化待遇法表示的是主觀的、親切的、無距離的、婉轉的情態。現代韓語的格式體及非格式體待遇法有混用的現象，這是為了緩和談話中的心理距離的選擇。

多數學者將半語定義為不拘格式的、親密的對話話階，但是韓語母語者對半語的觀念認知仍不一致，基本上半語不是敬語，是一種下待話階的性質，即使談話人認為以半語交談可以表示親切，但是對方不領情以致招致反感的情況仍然很多。是故半語應使用在互相確認過年紀、相處上已經到了可以敞開心胸無話不談的地步時，或為了加速熟悉而互相允許對方使用半語才使用半語。

如同말씀, 당신, 양반等詞彙有著尊敬、謙遜、卑下的多面性意義一樣，半語有著威權、傲慢、藐視、卑下、親密、親切的多面話用意義。

參考文獻

- 박종국(1980) 《말본사전》, 정음사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成耆徹(1985) 《現代國語 待遇法 研究》, 開文社
申昌淳(1984) 《國語文法研究》, 博英社
尹錫敏(2000) 《現代國語의 文章終結法 研究》, 集文堂
이정복(2002) 《국어 경어법과 사회언어학》, 月印
李翊燮·李相億·蔡琬(1997) 韓國의 言語》, 新구문화사
(2007) 《高校文法》
鄭寅承(1976) 《標準文法》, 啟蒙社
崔鉉培(1927-1983) 《우리 말본》, 정음문화사
李圭昌(1992) <現代 國語 尊待法の 尊待意識 變化에 대한 話用論的 考察>, 《國語學研究百年史[I]》, 一潮閣, pp257-279辭典
延世大學(2002) 《延世韓國語辭典》, 斗山東亞
國立國語院(1999) 《標準國語大辭典》, 斗山東亞

【韓文摘要】

한국어의 반말 체제

요약

화계는 한국어의 특질의 하나로 한국어를 배우면 으레 듣게 마련인 사항이다.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 한국어 대우법은 사람마다 평등이라는 사상에 영향 받아 화계의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다. 대신 반말이 애용된다.

반말은 "듣는 이와 말하는 이와를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을 때나 또는 친밀한 사이에 쓰이는,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이라 정의된다. 그러나 관계가 불투명하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면 과연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일방적으로 친절을 보여 주기 위해 반말을 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다. 낮은 사람이 반말을 듣게 되면 불쾌한 반응이 보인다는 게 예사이다.

반말이 도대체 한국어 원어민에게 어떤 이미지 또는 뉘앙스로 받아들여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일까? 한국어에 대우법이 있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던 듯 싶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구명하고자 한다.

언어는 과거의 역사 제도와 생활 양식을 잘 반영한다. 한국어에 왜 대우법(공손법, 경어법, 높임법)이 생겼을까에 대해 과거의 정치 신분 제도와 생활 태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에서 승자가 귀족이 되고 패자가 노예가 되었던 역사 법칙에 의해 소유와 예속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소유자의 영력권에서 일하고 살게 되니 양극화 관계에서 하대와 존대의 언어 기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노비는 세습제이었으니만큼 태어나기 전부터 받아야 할 대우는 물론 사용해야 할 화계도 정해져 있었다. 귀족이 최하급인 노비에게 격식 차릴 필요가 없었던 우위에 있어 반말을 하고, 노비가 높임말을 해야 하였던 것이다.

반말의 본래 이미지 때문인지 평등사회인 현대에 이르러서도 아무에게 반말을 듣게 되면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반말은 불쾌감은 없거니와 도리어 친근한 느낌이 든다는 일면도 있다. 사람들이 친해지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게 되니 저절로 비격식체인 반말을 쓰게 된다. 반말은 말쑥, 당신, 양반 등 명사와 같이 야누스(두개의 얼굴)인 것이다.

'왜 반말을 하십니까?','너도 반말을 해!','말을 놓으세요!','말을 높여 주세요!','나도 묻지 않고 반말을 해요?','새파란 게 반말을 해?','당신이 나를 아세요? 모르시면 왜 반말을 해요?' 대우법으로 인하여 낳게 된 말들이다.

한국인이 반말에 대한 감각은 '권위,오만,멸시,비하,친밀,친절'로 요약할 수 있다. 사용 시기는 친하게 지낸 후 상대방로부터 말을 놓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